

국어 영역 (화법과 작문)

제 5 교시

[1~2] 다음 글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.

A: 사이타마 대학 이케다 연구실 A 발표하겠습니다. 타이틀은 '가변 대기시간이 있는 순회 외판원 문제의 제안'입니다. (무서워, 하지만 괜찮아. B 선배에게 싫을 정도로 연습당했던 걸... 몸도 마음도 멋대로 움직여!) 우선 이 사진을 봐주세요!

(A: 꽤, 괜찮나요? 갑자기 이 사진을 꺼내도
B: 상관없다. 우선 깜짝 놀래켜라.)

이건 저번에 제 선배들이 유원지 데이트를 한 사진입니다. 그들은 데이트를 마음속에서 즐기고 싶다는 일념으로 유원지 놀이기구를 효율 좋게 도는 최적의 데이트 코스를 계산했습니다. 이용한 건 순회 외판원 문제, 모든 목적지를 한번씩 방문하고 처음 있던 장소에 도착하는 최단 루트를 구하는 문제입니다. 대표적 최적화 문제이자 다양한 해법이 제안 돼 있습니다. 하지만 문제인 데이트는 상당히 복잡했고 놀이기구엔 대기시간이 있었고 예정은 크게 뒤뚱했습니다. 거기에 각 목적지의 시간에 시간대별로 대기시간을 설정해 그걸 계산에 넣은 뒤에 최단시간 루트를 구하는 새로운 최적화 문제 가변 대기시간이 있는 순회 외판원 문제를 제안합니다. 이 문제를 쓰면 더욱 실용적인 데이트 코스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.

(A: 역시 TSP 데이트 코스엔 무리가 있어요. 적어도 데이트 대기 시간이 계산에 포함되면 좋는데...
B: 그럼 네가 만들면 된다.)

C: 하나 질문해도 될까요?
(A: 질문 대책은 뭐 없을까요?
B: 그런 잔재주를 생각할 시간이 있으면 선행연구라도 알아봐라! 교수는 학생을 깎아내리기 위해 질문하는 게 아니다. 모르는 건 모른다 하고 묻는 거에 진지하게 답해서 의논하면 돼.)

A: 네 하세요!
C: 목적지에 대기시간을 설정한다는 건 사전에 모든 대기시간이 판명된 걸 전제로 했을텐데 그 데이터는 준비할 수 있나요?
A: 음, 그게요... 말씀하신대로 완전히 예측하는 건 어렵습니다. 하지만 유원지의 하루 대기 시간 데이터는 축적된 경우가 많습니다. 그걸 기반으로 하면 쉬는 날에, 맑은 경우, 평일엔 이정도, 이렇게요.

C: 음,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.
D: 저도 하나 해도 될까요?
A: 하세요.
D: 재밌는 테마라 생각하는데요. 님은 선행 연구는 없었나요?
A: 음... 전부 알아보진 않았지만요
D: 호오 그거 예를 들어-
A: 예를 들어 님은 거 같아 읽어본 건 '시간 의존 순회 외판원 문제'예요. 이걸 목적지간의 이동시간이 시간대에 따라 다른 문제였어요. 점이 아니라 변이 변하는 타입이에요. 아, 하지만 제가 조사한 범위 내의 얘기고 같은 연구가 있을지 모르지만 혹시 같은 걸 알고 계신가요? 그럼 부디

D: 아니, 아니에요. A 군인가요? 역시 이케다연이야. 연구실에 간지 4개월째인데 잘 조사하셨군요~
(B: 얼른 읽어라. 네 분야의 논문이다. 언젠가 도움이 될 거다.)
A: 네 시끄러운 선배가 단련해주셔서요.
B: 흥, 시끄럽다니 참견이다.
- 애니메이션 '이과가 사랑에 빠졌기에 증명해보았다.' 10화 中

1. 다음 글을 보고 가장 틀린 설명을 고르시오. [3점]

- ① 'A'는 연구에 대하여 발표하고 있으며, 처음에는 무서워했지만, 'B' 선배와의 일화의 회상을 통하여 발표를 잘 이어나가고 있다.
- ② 'A'는 'B'의 놀이동산에서의 데이트를 한 경험을 바탕으로 발표하고 있으며, 'B'는 그 연구에 대해 사진을 사용하는 점을 허가하였다.
- ③ 'A'는 발표에서 연구 도중 발생한 문제점을 제시하였고, 시간이 변하는 대기시간이 있는 순회 외판원 문제를 제안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으나, 'C'에 질문에 대해 전체의 약간의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완점을 설명하였다.
- ④ 'A'가 한 연구는 논문과는 달리 점이 아니라 변이 변하는 타입의 연구를 한 특징이 있으며, 이 점을 'D'와의 대화에서 활용해서 'D'로부터 칭찬을 받아냈다.
- ⑤ 'A'는 'D'에게 같은 연구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며, 'D'는 이에 대하여 '아니에요'라고 답하였다.

2. 다음 글에서 'B'의 사고관과 맞지 않는 인물 하나를 고르시오.

- ① '갑'은 교수는 학생을 깎아내리려 질문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, 발표에 임했다.
- ② '을'은 발표를 준비하며, 교수들에게 개연성 있게 질문에 답하기 위해 글을 잘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하고, 심리학 책을 통하여 교수의 마음을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 터득하면서 발표를 준비했다.
- ③ '병'은 자신의 분야의 논문을 읽으면서 언젠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.
- ④ '정'은 발표를 하던 도중 교수의 질의응답과정에서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솔직하게 답하여 정직한 자세로 발표에 임했다.
- ⑤ '무'는 발표를 하던 도중 교수의 질의응답과정에서 묻는 사항에 대해 진지하게 답을 하고 의논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발표에 임하였다.

[3~4] 다음 대화(편지)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.

‘A’에게
 아까까지 같이 있던 사람한테 편지를 쓰려니 이상하네. 너 너무한 녀석이야. 굼벵이 둔탱이 바보. 널 처음 본 건 다섯 살 때 다니던 피아노 교실 발표회에서였어. 어색하게 등장한 그 아이는 의자에 엉덩이를 부딪쳐 웃음을 주었고 커다란 피아노를 마주하고 첫 음을 치는 순간 내 동경의 대상이 됐어. 음색은 24색 팔레트처럼 컬러풀했고 멜로디는 춤을 췄지. 옆자리 아이가 울어서 깜짝 놀랐어. 그래놓고 너 피아노를 관뉘버렸지. 남의 인생을 흔들어 놓고 너무한 녀석이야. 최악 둔탱이 바보. 같은 중학교인 걸 알고는 뭘 듯이 기뻐어. “어떻게 말을 걸면 좋을까?”, “매점에 샌드위치 사서 들락거릴까?” 하지만 결국 바라볼 뿐이었어. 내가 끼어들 틈이 없어보여서... 어릴 때 수술하고 정기적으로 통원하다가 중 1때 쓰러진 뒤로는 입원과 퇴원의 반복, 병원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어. 학교엔 거의 못 나갔지. 몸 상태가 별로 안 좋단 건 나도 알고 있었어. 어느 날 밤 병원 대기실에서 엄마 아빠가 우는 걸 보고 얼마 남지 않았단 걸 알았어. 그때였지. 난 달려나갔어! 천국에 후회를 가져가지 않도록 하고 싶은 대로 했어. 무서웠던 콘택트렌즈 하기, 살찔까봐 못 해봤던 케이크 통째로 먹기, 잘난 악보 지시대로가 아닌 나다운 연주를 했어. 그리고 딱 하나 거짓말을 했어. ‘B’는 ‘C’를 좋아한다고 거짓말을 했어. 그 거짓말은 내 앞에... ‘A’ 널 데려와줬어. ‘C’한테 미안하다 전해줘. 뭐 ‘C’는 나 같은 거 금방 잊어버리겠지만... 친구로는 재미있지만 난 역시 한결같은 사람이 좋아. 그리고 ‘D’한테도 미안하다 전해줘. 난 스쳐 지나가는 없어질 사람... 괜한 화근을 남기기 싫어서 ‘D’한테 부탁 못 했어. 하긴 ‘A’를 소개해달라고 솔직히 부탁해봤자 ‘D’는 좋은 대답을 안 줬겠지만 왜냐하면 ‘D’는 널 많이 좋아하니까 모두가 다 아니까 그걸 몰랐던 건 너와 ‘D’뿐... 나의 약은 거짓말이 데려온 너는 상상했던 것과 달랐어. 생각보다 음침하고 비굴하고 고집 세고 끈질긴 도촬범... 생각보다 목소리가 낮고 생각보다 남자다운 생각했던 대로 상냥한 사람이었어. 다리에서 강물로 뛰어든 때 차가워서 기분 좋았는데 음악실을 들여다보는 둥근 달이 만주처럼 맛있게 보였어. 잔치와 달리기할 때는 정말 이길 것만 같더라. 빛나는 별 아래서 함께 부른 반짝반짝 작은 별, 즐거웠지? 밤의 학교에는 뭔가 나오는 게 분명해! 눈은 꼭 벚꽃잎 같지 않아? 연주가인데 무대 밖 일들로 마음이 가득하다니 웬지 이상해. 잊을 수 없는 풍경이 이런 사소한 거라니 웃기지? 너 어때? 내가 누군가의 마음에 살게 됐을까? 내가 네 마음에 살게 됐을까? 조금이라도 날 떠올려줄까? 리셋하면 싫어. 잊지 말아줘. 약속이야. 역시 너로 하길 잘했어! 닿으려나 닿았으면 좋겠다. ‘A’ 네가 좋아! 좋아... 좋아.. 까눌레 다 못 먹어서 미안. 맨날 때려서 미안. 고집만 피워서 미안. 많이많이 미안. 고마워!
 추신, 내 보물을 동봉할게. 필요 없으면 찢어서 버려줘.
 - 애니메이션 ‘4월은 너의 거짓말’ 22화 中에서

- ② 물음을 반복적으로 하여 받는 이에게 질문을 제시하고 있다.
- ③ 두 대상과의 공통점을 통해 서로에 대해 비교하고, 이후 차이점을 제시하여 두 대상을 대조하고 있다.
- ④ 과거시제 표현을 통해 일부 행위가 과거에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.
- ⑤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의 물건을 추신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.

4. 다음 글의 내용을 보고 가장 틀린 설명을 고르시오. [3점]

- ① 가: 필자는 다음 글에서 ‘A’를 처음으로 봤을 때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군.
- ② 나: 필자는 ‘A’에 대하여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지만, 긍정적인 면을 언급하여서 제시해주기도 하는군.
- ③ 다: 필자에게 있어서 거짓말은 ‘A’와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으며, ‘B’는 필자이며, ‘C’에게 미안함을 전하려고 하고 있군.
- ④ 라: 필자는 자신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달은 후, 지난 삶을 후회하며 우울해 하였겠군.
- ⑤ 마: 필자는 ‘C’와 ‘D’의 반응을 추측하여 그에 대한 내용을 글에 담아내고 있군.

<여기까지 입니당~ 화작러들이 재밌게 즐기고 갔으면 합니다.>

3. 다음 글을 보고, 이 글에서 사용되지 않은 표현방식을 고르시오.

- ① ‘~처럼’과 같은 방식으로 비유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느낌을 제시하고 있다.

* 확인 사항
 ○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(표기)했는지 확인하시오.